

자기개념 복잡성과 심리적 적응 관계에서의 인지적 유연성 및 자기개념 명확성의 매개효과 모형 검증*

송보라 이기학†
연세대학교

본 연구는 자기개념 복잡성이 인지적 유연성과 자기개념 명확성을 통해 심리적 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대학생 200명을 대상으로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해 매개효과를 살펴본 결과, 자기개념 복잡성과 자기개념 명확성의 관계에 있어서 인지적 유연성은 부분매개 변인으로 작용했다. 그리고 이 부분매개 과정이 결과적으로 개인의 심리적 적응 수준을 높이는지 살펴보기 위해 설정한 모형도 적합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즉, 다양하고 복잡한 역할과 특성을 가진 사람이 만족과 행복을 느끼며 살기 위해서는, 유연한 사고를 통해 그러한 자기모습을 명확히 인식하는 과정을 거쳐야 함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결과는 다양한 역할을 갖기 시작하고 자신의 여러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시기인 성인기 초반의 사람들에게 더욱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들이 어떤 상황에서든 적응적인 모습을 보이며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으려면, 인지적 유연성의 발달을 통해서 통합적이며 총체적인 자아상을 성립하는 과정이 수반되어야 함을 시사한다고 본다.

주요어: 자기개념 복잡성, 자기개념 명확성, 인지적 유연성, 주관적 안녕감, 지각된 스트레스

자기개념은 개인이 자신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관념의 총합으로서 한 인간의 삶을 질적으로 평가하고 자신의 복지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척도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자기개념에 대한 연구는 크게 내용과 구조의 두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지며, 내용적 측면에서는

자기가치감, 자기존중감, 자기효능감, 자기긍정성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Woolfolk, Novalany, Gara, Allen, & Polino, 1995), 구조적 측면에서는 자기개념을 여러 가지 차원으로 구성된 복잡하고 분화된 체계로 정의하고 자기개념의 조직화 방식에 관

* 본 연구는 BK21 지원사업인 '인지 및 심리과학 전문인력양성 및 실용화사업단'에 의해 수행됨.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이기학 /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 (120-749)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동 134번지
Tel: 02-2123-2445 / E-mail: khlee2445@yonsei.ac.kr

심을 둔다. 즉, 구조적 측면에서 보는 자기개념은 다양한 경험을 조직적으로 축적하는 하나의 기억체계로서, 다면적이고 다차원적이며, 위계적인 구조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개인이 성장하고 발달함에 따라 자기개념은 점차 다면적이고 다차원적으로 발전한다(Markus, 1990; Marsh, Relich, & Smith, 1983).

자기개념의 구조는 James(1890)의 자기이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총체적 자기는 인식자이면서 동시에 피인식자, 주체이면서 객체인 두 가지 측면을 가진다. 즉, 인식의 주체와 대상으로서의 자기가 모두 일관성, 동질성을 가지며 이것이 자아정체감의 바탕을 이룬다는 것이다. 이는 자기개념의 구조가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표상적 구조)를 탐색하는 것 뿐 만 아니라, 경험적으로 자기개념의 구조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인식적 구조)를 함께 고려함으로써 보다 정확히 자아정체감 수준을 예측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다차원적 자기개념의 표상적 구조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개념은 Linville(1987)의 자기개념 복잡성 개념이다. 자기개념 복잡성 이론에 따르면, 자기측면들의 조직화 방식이 개인의 인지, 정서적 반응에 영향을 미친다. 자기측면이란,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 가지고 있는 지식, 정보를 표상하는 다양한 인지적 구성개념이다. 즉, 한사람이 담당하고 있는 사회적 역할, 다른 사람과의 관계, 생활에서의 다양한 활동, 상황, 목표 등 한 사람을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모습들이 자기측면이 될 수 있다(McConnell, Renaud, Dean, Green, Lamoreaux, Hall, & Rydell, 2005). 이러한 자기측면의 개수, 자기측면 간의 중첩정도로 구성되는 개념이 자기개념 복잡성이며, 한 개인이 자신의 모습을 다양하고, 분별력 있게 인식하고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Linville(1987)이 내세운 자기개념 복잡성의 스트레스 완충 모델을 살펴보면, 복잡한 자기측면들을 통해 스트레스 지각 정도를 낮출 수 있음을 설명한다. 이러한 주장은 실패 후의 자기도피에 관한 연구(Dixon & Baumeister, 1991), 인간관계의 와해(Smith & Cohen, 1993), 성인의 일상적 스트레스 경험(Jordan & Cole, 1996), 자의식의 억압에 관한 연구(Renaud & McConnell, 2002) 등 다양한 영역의 연구에서도 지지되고 있다.

그러나 다양하고 복잡한 자기개념이 심리적 건강에 긍정적이지만은 않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Donahue, Robinson, Robert, & John, 1993). 대학생의 심리적 건강을 예측하는데 있어서 자기개념 복잡성은 스트레스 지각과 유의한 관련이 없었고(Hershberger, 1990), 오히려 카멜레온처럼 여러 모습으로 행동하는 사람은 자신의 역할 및 정체성에 혼동을 느꼈다. 아울러, 분열된 자기개념이 심리적 안녕감을 저하시키고 병리적 문제를 야기하는데 관여한다는 입장은 다양한 정신 병리 연구에서 지지되고 있다(Gara, Woolfolk, Cohen, Goldston, Allen, & Novalany, 1993).

이렇듯 상충되는 결과들로 인해, 그동안 자기개념 복잡성과 심리적 적응 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에 대한 연구가 있어왔다. 최근 연구들을 살펴보면, 자기측면들을 자신이 통제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자기개념 복잡성과 심리적 적응 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자기측면 통제개념이 지지되었고(McConnell 등, 2005), 자기효능감, 인지적 유연성 등이 자기개념 복잡성과 우울 및 지각된 스트레스 등 심리적 건강과의 관계를 조절하는 변인으로 작용한다(이정은, 2006; 김완일, 2008). 그러나 자기개념 복잡성은 의식적 수준에 존재하기 보다는 인지적 표상으로 존재하는 구조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 정의가 모호하여 자기개념의 구조에 있어서 경험적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Rafaeli-Mor & Steinberg, 2002). 즉, 표상적인 자기개념 복잡성만으로 심리적 적응을 예측하기보다는 인식적 개념과 함께 구조적 자기개념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 부합하여 구조적 자기개념을 총체적으로 다룬 연구를 보면, 표상적 구조인 자기개념 복잡성과 인식적 구조인 자기개념 명확성이 모두 높을 때 심리적으로 건강함을 알 수 있다(이수현, 2005). 자기개념 명확성이란 자기와 관련된 개념들에 대해서 경험적으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개념이다. 즉, 사람들이 스스로에 대해 갖고 있는 개념의 내적 일관성과 시간적 안정성, 그리고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정도를 의미한다(Campbell, 1990). 이러한 결과는 마치 퍼즐 조각들이 하나의 그림으로 완성되지 못하면 그 의미를 상실하는 것처럼, 복잡한 구조

의 자기개념들은 자신에 대해 일관되고 통합된 인식을 가지고 있을 때 적응적인 기능을 발휘함을 의미한다. 또한 자기개념 명확성은 정교히 구분된 복잡한 자기측면들이 전체될 때 더 적응적인 기능을 한다(Campbell, Assanand, & Paula, 2003). 따라서 서로 다른 자기 모습들을 통합하여 분명히 볼 수 있는 시각을 가지고 있을 때 자기개념 복잡성이 긍정적인 심리자원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자기개념들이 분리된 구조에서 혼란을 느끼는 사람에게는 자기개념 복잡성이 역기능을 한다는 Donahue 등(1993)의 주장도 위와 같은 가설과 동일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자기개념의 발달과정을 알기 위해서는 자기개념 복잡성과 자기개념 명확성, 두 관점의 합치점을 찾아 연결과정을 밝혀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그동안의 연구에서는 대부분 자기개념의 복잡성과 명확성 각각이 심리적 적응을 예측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어왔으며(Campbell, Chew, & Scatchley, 1991; Campbell, et al., 2003), 두 개념이 독립적 차원에 존재할 것이라 판단해왔다(이수현, 2005). 자기개념 복잡성은 표상으로 존재하는 구조 자체이며 자기개념 명확성은 인식적 구조라 할 수 있으므로 두 개념이 분명히 구분되기는 해도, 둘 다 자기와 관련된 인지적 구조이며 자기개념 명확성 중 자기개념 간의 내적 일관성은 자기개념 복잡성 중 자기측면 간의 중첩과 유사하므로 관련성이 없다고 보기는 힘들다. 또한 개념적으로 볼 때에도, 자신의 모습이 다양하고 복잡하다 느끼는 사람은 자기개념들 간의 명확한 통합이 덜 이루어져 있을 가능성이 높고, 반대로 자신이 단순한 모습을 갖고 있다 여기는 사람은 모호성을 덜 느껴 자신을 명확히 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Schroeder, Driver 와 Streufert(1967)의 통합적 복잡성 관점에서는 많은 자기개념들은 구분된 뒤 통합적으로 인식된다고 보았다. 즉, 자기개념의 다차원성이 통합적 인식에 선행함을 의미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자기개념 복잡성이 자기개념 명확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가정하였다. 단, 이때 복잡한 구조의 자기개념들을 다양한 시각으로 받아들여 통합적인 자기개념으로 이끌어내는 과정에 매개변인이 존재할 것이라 보았다.

피즐 조각들을 하나의 완성된 그림으로 만들기 위해

서는 조각들을 맞춰내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조각들을 이리저리 돌리며 다양한 방향에서 살펴보고, 피즐을 맞추는 복잡한 과정에 대해 흥미를 느낀다면 더욱 쉽게 피즐을 완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개념적 접근에 부합하는 즉, 사고의 다양성과 복잡함의 선호성을 포괄할 수 있는 변인으로 인지적 유연성을 들 수 있다. 인지적 유연성이란 변화에 대한 능력이며(Thurston & Runco, 1999), 주어진 상황에서 이용 가능한 대안이 있다는 것에 대한 인식, 상황에 적응하고 순응하고자 하는 자발성, 유연함에 있어서의 자기 효능감이라 할 수 있다(Martin & Rubin, 1995). 국내 연구에서 홍숙지(2005)는 인지적 유연성이란 창의적이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해낼 수 있는 능력과 다양한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복잡하고 새로운 상황과 문제에 흥미를 느끼고 회피하지 않는 태도로 정의했다. 인지적으로 유연한 사람의 경우, 불안을 최소화하고 자존감을 최대화 하는 방식으로 환경의 압력에 적응하며 자신감이 높다(Martin & Rubin, 1995)는 등 인지적 유연성이 심리적 건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많은 연구결과가 있다.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이러한 인지적 유연성이 자기개념 복잡성과 더불어 심리적 건강을 예측함을 알 수 있다. 유연성이 높은 사람은 다양한 역할과 행동을 보이기 때문에 자기개념이 복잡한 사람이라 볼 수 있고(Paulhus & Martin, 1988), 자기개념이 다차원적일수록 환경이나 역할 변화에 빠르고 유연하게 대처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Gergen, 1971; Goffman, 1959). 역할의 수가 많고 다양할수록 상황에 따라 이를 활용하는 유연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심리적 안녕이 증가한다(Helson, Elliott & Leigh, 1990). 또한 자기 범주가 많다고 믿는 사람은 상황에 맞는 역할을 융통성 있게 취할 수 있어 인지적 유연성이 높고 그로 인해 심리적으로 건강한 삶을 유지하게 된다(Markus & Nurius, 1986). 즉, 단순히 자기 모습이 변화무쌍하다고 여기는 사람은 이에 혼란을 느낄 가능성이 높지만, 다양한 자기 모습에 대해 인지적으로 유연하다면 복잡한 자기 모습도 기능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복잡한 자기개념의 표상적 구조를 유연하게

받아들이는 인지과정은 자기개념 명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인지적 유연성과 마찬가지로 자기개념 명확성도 자기 내부의 지식구조를 어떤 방식으로 인식하고 있는지의 경험적 인지구조에 관한 것이다(이수현, 2005; 김완일, 2008). 따라서 인지적 유연성을 통해 복잡한 자기정보가 개방적으로 받아들여질 뿐만 아니라(Paulhus & Martin, 1988), 적응하려는 자발성인 인지적 유연성(Martin & Rubin, 1995)은 복잡한 자기 지식을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보게끔 하여 보다 통합적으로 자기개념들을 인식하는 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사람은 자신의 외부로부터 야기되는 다양한 스트레스 요인들로 인해 심리적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자기 내부의 여러 복잡한 생각들 때문에 정신적 고통을 받기도 한다. 다시 말해, 자신이 얼마나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가를 헤아려볼 때 사회 환경적 요소 뿐 만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

식, 자기개념, 그리고 개인의 특성을 연관 지어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자기개념에 있어서 개인의 인지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자기개념 복잡성, 자기개념 명확성, 인지적 유연성의 세 변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자기개념의 구조적 측면에 대해 직선적 매개모형을 가정한 뒤, 자기개념의 표상적 구조인 복잡성과, 인식적 구조인 명확성 간의 합치점을 찾음으로써 성숙하고 발달된 자기개념의 확립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통해 자기개념의 표상적, 인식적 구조와 심리적 적응 간의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가설1. 인지적 유연성이 매개 역할을 함으로써 자기개념 복잡성이 높을수록 자기개념 명확성도 높아질 것이다.

가설2. 자기개념 복잡성은 인지적 유연성 및 자기개념 명확성을 매개로 할 경우, 심리적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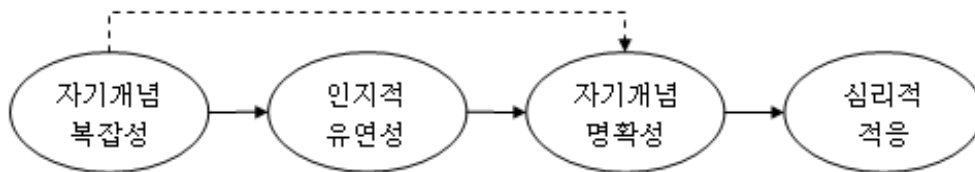


그림 1. 가설 모형: 자기개념 복잡성과 심리적 적응 간의 직선적 매개모델

주. 직선으로 표시된 화살표는 본 연구에서 가정하는 주요한 인과 경로이며, 점선으로 표시된 화살표는 가능한 인과경로일 수도 있으나 그 영향력의 정도가 미미함을 나타냄(조용래, 1999).

방 법

연구대상 및 절차

서울 소재의 Y 대학교에서 심리학 관련 교양 수업을 듣는 학생 200명이 본 연구에 참여했으며, 설문에 응답하는 대가로 학생들은 심리학 과목 수강 요건인 1 크레딧을 부여받았다. 총 200명의 자료가 분석되었으며, 성별 분포는 남학생이 80명(40%), 여학생이 120명(60%)이었고, 1학년이 72명(36.0%), 2학년이 63명(31.5%), 3학년이 26명(13.0%), 4학년이 39명

(19.5%)이었다. 연령 분포는 20세 이하가 33.0%, 21-22세가 32.0%, 23-25세가 27.5%, 26세 이상이 7.5%로 나타났다.

연구 참여자들에게 인구학적 질문과 변인 측정도구로 구성된 질문지를 실시하였고 심리학과 내의 연구자 윤리 규정인 IRB의 지침에 따라 참여자 모집, 자료 수집, 자료 관리가 이루어졌다. 피험자들은 한 번에 20명씩 모여 30분간 설문에 참여했으며, 설문지는 다음에 소개되는 측정도구들의 순서대로 구성하였다.

측정도구

자기개념 복잡성 측정도구

자기 개념의 분화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Linville (1982, 1985, 1987)이 사용한 성격특성 카드 분류 기법을 강인(1998)이 지필식으로 재구성한 자기개념 복잡성 과제를 활용하였다. 이수현(2005), 이정은(2006), 김완일(2008)의 연구에서 사용된 자기개념 복잡성 척도의 형용사 목록을 취합한 뒤 Linville이 그의 연구에서 쓴 방식대로 12명의 심리학과 대학원생들에게 대학생의 성격을 잘 표현하는 형용사를 골라내도록 하여, 선택빈도가 높은 33개의 형용사를 조합하여 만들었다. 자기개념 복잡성 과제에 사용되는 형용사들 중 긍정형용사가 더 많이 포함될수록 자기개념 복잡성의 점수는 높아지기 때문에(Woolfolk & Novalany, 1995) 본 연구에서는 긍정형용사와 부정/중성형용사 개수의 비율을 맞추어 선정하였다. 그 결과,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기개념 복잡성 척도(Self complexity scale; SCS)에는 자신의 특성을 나타내는 형용사 33개(긍정형용사 16개, 부정/중성형용사 17개)가 포함되었다.

자기개념 복잡성 과제에서는 먼저 현재의 자기를 나타내는 여러 모습 및 상황들을 더 이상 생각나지 않을 때까지 적도록 했다. 그 후, 제시된 목록의 33개 형용사들 중 각 모습/상황에 해당되는 자신의 특성을 모두 기입하도록 했다. 이때 피험자들에게 33개의 형용사들을 모두 다 한 번씩 사용할 필요는 없으며, 동일한 형용사를 각기 다른 자기 측면에 반복 사용할 수 있음을 알려주었다.

자기개념 복잡성 점수는 Linville(1985, 1987)의 연구에서 사용된 Scott(1969)의 H통계치를 이용하여 구하였다. 공식은 다음과 같다.

$$SC(H) = \log_2 n - (\sum_i n_i \log_2 n_i) / n^1$$

1) H공식에서 n은 성격특성 형용사의 총 개수(본 연구에서 33개)이며, ni는 특정 집단조합에 나타난 형용사의 수, 즉 $n = \sum n_i$ 이다. 만약 한 개인이 2개의 형용사 집단을 구성했다면 1개의 특정 형용사는 4가지 가능한 집단조합들(집단1, 집단2, 집단1과2, 앞의 세 가지 집단에 속하지 않는 조합) 중 하나의 집단조합에 포함될 것이다. 이 예에서 위 공식의 ni는 다음처럼 구체적으로 표현될 수

본 연구에서는 복잡한 자기개념 복잡성 점수 산출을 위하여 Scott의 H통계치 공식이 포함된 컴퓨터 프로그램²⁾을 활용하였다. 프로그램은 참여자가 질문지에 적은 자기 모습/상황들의 개수와 각 자기 측면들에 적어 넣은 형용사 번호들을 입력하고 OK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계산되도록 만들어졌다. 자기개념 복잡성 점수의 범위는 최저 0점에서 최고 5.04점까지 가능하다.

인지적 유연성 측정도구

다양성 사고와 복잡성 선호의 하위개념으로 이루어진 인지적 유연성의 측정을 위해 홍숙지(2005)가 개발한 개인 유연성 척도(Individual Flexibility Scale)의 39문항 중 인지적 유연성 차원에 해당하는 18문항만을 묶어 인지적 유연성 척도로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창의적이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해 낼 수 있는 능력과 다양한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11개의 ‘다양성 사고’ 문항과, 복잡하고 새로운 상황과 문제에 흥미를 느끼고 회피하지 않는 것을 나타내는 7개의 ‘복잡성 선호’ 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다양성 사고에 해당하는 문항에는 “나는 여러 각도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편이다.” “나는 다른 사람들이 생각해내지 못하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잘 생각해내는 편이다.” 등이 있으며, 복잡성 선호에 해당하는 문항에는 “나는 복잡한 문제들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에 흥미를 느낀다.” “나는 수학문제를 풀 때, 정해진 공식에 의해서만 푸는 편이다.”(역제점) 등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5단계 Likert 척도로 평정되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복잡한 상황에 흥미를 느끼며 다양한 관점에서 폭넓은 사고를 할 능력이 있음을 나타내어 인지적 유연성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홍숙지

있다. n_1 =집단1에만 속하는 성격특성 형용사의 개수, n_2 =집단2에만 속하는 성격특성 형용사의 개수, n_3 =집단1과 집단2에 동시에 속하는 성격특성 형용사의 개수, n_4 =위의 세 집단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성격특성 형용사의 개수이다. 따라서 자기개념 복잡성 점수는 자기를 나타내는 자기 모습/상황의 수가 많을수록,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형용사가 적을수록 높아지게 된다.

2) 본 연구에서 사용한 ‘H통계치 공식이 포함된 컴퓨터 프로그램’은 이정은(2006)이 석사학위 논문에서 사용하였던 프로그램이다.

(2005)의 연구에서 이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다양성 사고에서 .86, 복잡성 선호에서 .75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의 내적 신뢰도 계수는 다양성 사고에서 .87, 복잡성 선호에서 .67로 나타났다.

자기개념 명확성 측정도구

자기 개념에 대한 확신성, 일관성, 지속성의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12개 문항으로 구성된 Campbell 등 (1996)이 개발한 Self-Concept Clarity(SCC)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번안 과정은 본 연구자가 영어로 된 원래 척도를 한국어로 번역한 뒤, 세 명의 심리학 전공 대학원생에게 문장의 유연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 받아 번역본을 완성하였다. 번역되어진 척도를 두 명의 이중 언어자가 다시 영어로 역번역 하였으며, 이 역번역 된 문항을 원래 척도와 비교하여 문항의 의미가 같은지를 교차 확인하여 최종 척도를 완성하였다. 각 문항의 예는 “겉으로 드러난 내 모습과 실제의 내가 다른 것 같다.” “내가 실제로 어떤 사람인지를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가 없다.” 등과 같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5단계 Likert 척도로 평정되었다. 높은 점수일수록 스스로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확인하는 정도와 자기 지식들 간의 내적 일관성, 그리고 자기 지식의 시간적 안정성을 보여 자기개념 명확성 수준이 높음을 뜻한다. Campbell(1996)등의 연구에서 이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86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는 .80으로 나타났다.

심리적 적응 측정도구

적응적인 심리상태를 측정하기 위해서 주관적 안녕감과 스트레스 정도를 살펴보았다. 주관적 안녕감은 삶에 대한 만족도와 긍정적인 정서 수준으로 나누어 측정하였고, 스트레스 경험 수준은 스트레스 사건이 아니라 스트레스를 얼마나 지각하는가를 측정하여 살펴보았다.

삶에 대한 만족: 삶에 대한 만족을 측정하기 위해 Diener, Emmons, Larsen 및 Griffin(1985)의 Satisfaction with life scale(SWLS)을 이용하였다. 이 척도는 자신의 삶에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

가를 측정하는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참가자들은 각 문항에 얼마나 동의하는지 7점 척도로 응답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안신능(2006)이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개인이 스스로의 삶에 대해 만족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Diener 등의 연구에는 내적 합치도가 .87로 나타났고, 안신능의 연구에서는 .82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81로 나타나 높은 내적 신뢰도를 보여주었다.

정서적 안녕감: 참가자들의 긍정적, 부정적 정서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서 Diener, Smith와 Fujita(1995)가 개발한 정서 경험 척도를 사용하였다. 4가지 긍정 정서(사랑, 기쁨, 자부심, 애정)와 4가지 부정 정서(슬픔, 분노, 두려움, 수치심)를 최근에 얼마나 자주 경험하였는지 7점 척도에 따라 평정하게 하였다. 1점은 “전혀 경험하지 않음”, 7점은 “매우 자주 경험”으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각각의 정서를 자주 경험했음을 의미한다. 정적 정서경험의 평균에서 부적 정서경험의 평균을 뺀 값을 정서적 안녕감의 점수로 사용하였다(Suh, Diener, Oishi, & Triandis, 1998참고) 이 척도를 사용했던 김혜원(2000)의 연구에서는 내적 신뢰도가 긍정 정서에서 .81, 부정 정서에서 .68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는 각각 .74와 .70의 수준을 보였다.

지각된 스트레스 척도: 참가자들의 지각된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서 Cohen과 Williamson(1988)의 지각된 스트레스 척도(Perceived Stress Scale: PSS)를 이정은(2006)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참가자는 5점 척도로 응답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를 지각하는 정도가 높음을 의미하며 기존의 자기개념 복잡성 연구에서 사용했던 스트레스 척도와 같은 개념을 측정한다. 문항들은 일상생활에서 예측과 통제가 불가능하고 과도한 부담이 느껴지는 수준을 묻는 질문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난 한 달 동안 경험한 그러한 정서에 대해 1점: “전혀 없었다” 부터 5점: “매우 자주 있었다” 까지 중 응답하도록 했다. 이는 현재 경험하고 있는 스트레스의 수준을 직접적으로

나타낸다. Cohen과 Williamson(1988)의 연구에서는 내적 신뢰도 계수가 .78 이었고 이정은(2006)의 연구에서는 .83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86으로 나타났다.

분석 방법

복잡한 자기 지식 구조가 적응적 역할 수행으로 가는 경로에 대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검증하였다. 구체적으로, 인지적 유연성을 통해서 자기개념 복잡성이 자기개념 명확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자기개념 복잡성이 인지적 유연성과 자기개념 명확성을 통해 심리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본 연구모형을 통해 살펴보았다. 이러한 모형 검증을 하기 위해 SPSS 15.0을 사용하여 기술 통계 및 상관 분석을 시행하였다. 그 후 Amos 7.0을 이용하여 자기개념 복잡성, 인지적 유연성, 자기개념 명확성, 심리적 적응의 구조 방정식 모형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연구 모형 및 대안 모형의 적합도와 변인 간의 회귀 계수를 산출하였다.

결 과

변인들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표 1. 변인들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1	2	3	4	5	6	7	8
1. 복잡성								
2. CF 1	.21**							
3. CF 2	.16*	.71**						
4. 명확성	-.10	.12	.24**					
5. 삶의 만족도	.15*	.26**	.16*	.25**				
6. 긍정적 정서	.10	.15*	.08	.15*	.39**			
7. 부정적 정서	-.02	-.05	-.15*	-.35**	-.39**	-.17*		
8. 스트레스	-.06	-.26**	-.22**	-.38**	-.52**	-.52**	.59**	
M	3.25	39.11	24.66	34.33	22.82	20.29	13.88	28.11
SD	.69	6.31	3.65	7.12	5.18	4.26	4.51	6.60

CF = 인지적유연성(1 : 다양성사고, 2 : 복잡성선호)
* $p < .05$. ** $p < .01$.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기개념 복잡성, 인지적 유연성, 자기개념 명확성, 심리적 적응의 모든 측정변인에 대한 평균, 표준편차 및 상관관계를 표1에 제시하였다. 각 변인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자기개념 복잡성 수준과 인지적 유연성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관계를 보였고(다양성사고 $r=.21, p<.01$; 복잡성선호 $r=.16, p<.05$), 자기개념 명확성과는 부적인 경향을 보였다 ($r=-.10, p>.05$). 또한 심리적 적응의 하위 변인인 삶의 만족도와는 유의한 상관이 있으나($r=.15, p<.05$) 긍정적 정서($r=.09, p>.05$), 스트레스($r=-.06, p>.05$)와는 유의미한 상관이 없었다. 인지적 유연성은 자기개념 명확성 및 심리적 적응과 모두

대체로 정적인 상관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인지적 유연성 중 다양성 사고는 삶의 만족도 및 스트레스와 유의한 관계를 나타냈다(명확성 $r=.12, p>.05$; 삶의 만족도 $r=.26, p<.01$; 긍정적 정서 $r=.14, p>.05$; 스트레스 $r=-.26, p<.01$). 그리고 인지적 유연성 중 복잡성 선호는 자기개념의 명확성, 심리적 적응의 변인들 모두와 유의한 관계를 나타냈다(명확성 $r=.24, p<.01$; 삶의 만족도 $r=.16, p<.05$; 긍정적 정서 $r=.16, p<.05$; 스트레스 $r=-.22, p<.01$). 즉, 인지적 유연성이 높을수록 자기개념이 명확하며 삶의 만족도가 높고, 높은 수준의 긍정적 정서와 낮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개념 명확성

역시 삶의 만족도($r=.25, p<.01$) 및 긍정정서($r=.34, p<.01$)와는 모두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지각된 스트레스와는 유의한 부적 상관($r=-.38, p<.01$)을 보여, 자기개념 명확성이 높을수록 심리적 적응도가 높음이 나타났다.

자기개념 복잡성, 인지적 유연성, 자기개념 명확성 매개효과 검증

Amos 7.0을 이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우선 자기개념 복잡성과 자기개념 명확성의 관계에서 인지적 유연성의 매개효과를 살펴보았다. Holmbeck(1997)이 제안한 구조방정식에서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절차에 따라 먼저 예측 변인인 자기개념 복잡성이 자기개념 명확성에 영향을 미치는 모형(c)을 검증하였고, 다음으로 예측변인인 자기개념 복잡성이 매개변인인 인지적 유연성에 영향을 미치고(a), 매개변인인 인지적 유연성이 결과변인인 자기개념 명확성에 영향을 미치는 모형(b)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a와 b모형은 모두 적합한 모형 적합도를 보였으며 두 변인간의 관계가 각각 유의미했다. 그러나 c의 경우, 모형 적합도는 유의했지만 직접효과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는 자기개념 복잡성과 자기개념 명확성 간의 직접효과의 방향과 상충되는 방향의 매개효과가 존재하여 이 직접효과가 희석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를 억압변인 과정(Suppressor variable process)이라 한다(Shrout & Bolger, 2002).

그리하여 마지막 단계로서 매개모형에서 예측변인인

자기개념 복잡성과 결과변인인 자기개념 명확성 사이의 경로계수를 0으로 제약할 때(완전매개 모형), 제약하지 않을 때(부분매개 모형)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먼저, 인지적 유연성의 완전매개 모형을 검증한 결과, 전반적인 적합도 면에서 보면 대체로 모형이 자료와 부합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chi^2(19, N=200)=41.076, p=.002$; RMSEA=.076(90% CI: .044-.109), CFI=.963, TLI=.946, 인지적 유연성에서 자기개념 명확성으로 가는 경로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따라서 자기개념 복잡성에서 자기개념 명확성으로 이르는 경로를 추가한 인지적 유연성의 부분매개 모형을 살펴보았다(그림2). 그 결과, 부분매개 모형의 적합도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chi^2(18, N=200)=36.906, p=.005$; RMSEA=.073(90% CI: .038-.106), CFI=.969, TLI=.951, 자기개념 복잡성이 인지적 유연성으로 가는 경로, $\beta=.177, p<.05$, 인지적 유연성에서 자기개념 명확성으로 가는 경로, $\beta=.277, p<.001$, 자기개념 복잡성이 자기개념 명확성으로 가는 경로 모두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beta=-.169, p<.05$. 따라서 자기개념 복잡성과 자기개념 명확성의 관계에 대한 인지적 유연성의 부분매개 모형은 적합했다. 즉, 부분매개 모형에서 자기개념 복잡성이 높아질 때 자기개념 명확성은 유의하게 낮아지지만, 인지적 유연성을 매개로 했을 경우에는 자기개념 복잡성이 높을수록 자기개념 명확성도 높아지게 된다. 이는 앞서 언급한 Shrout & Bolger(2002)의 억압변인 과정을 거쳐 매개효과가 검증되었음을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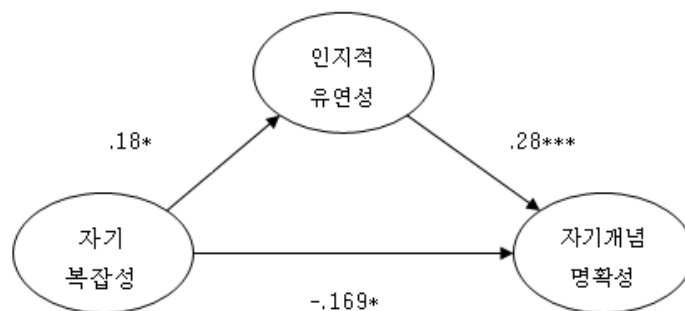


그림 2. 자기개념 복잡성, 인지적 유연성, 자기개념 명확성의 매개모형
* $p < .05$. *** $p < .001$.

자기개념 복잡성과 심리적 적응에 대한 모형 검증

Angerson과 Gerbing(1988)이 제안한 이단계 접근법에 따라, 연구모형을 검증하기 이전에 각 이론변인들을 측정하는 측정변인들이 적절하게 이론변인을 나타내는지 알아보고자 측정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검증 결과 측정모형은 수집된 자료에 잘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chi^2(22, N=200)=45.21, p<.01; RMSEA=.073(90\% CI: .042-.103), CFI=.963, TLI=.924$, 따라서 측정모형이 연구모형을 검증하기에 적절한 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자기개념 복잡성이 인지적 유연성, 자기개념 명확성을 통해 심리적 적응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그림3의 연구 모형을 검증하였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인지적 유연성과 자기개념 복잡성이 바로 심리적 적응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림4의 대안 모형도 검증하였다. 모형 설정에 있어서 점수 산출 프로그램을 통해 하나의 점수로 계산되어지는 자기개념 복잡성은 측정변수로 설정하였고, 인지적 유연성은 다양성 사고와 복잡성 선호의 두 하위 개념으로 나눠 측정변인으로 설정하였다. 자기개념 명확성 척도는 단일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측정오차를 줄이기 위하여 요인분석을 통해 문항들을 항목 합산 하였다. 그 결과 자기개념 명확성은 3개의 측정 변인으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심리적 적응은 세 개의 하위개념을 구분하여 삶의 만족도, 정서적 안녕감, 그리고 지각된 스트레스 수준을 측정변인으로 설정하였다.

먼저 모형의 적합도를 살펴보기 위해 CFI, TLI, RMSEA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TLI와 CFI의 경우 .90 이상일 때(Bentler, 1990) 좋으며 RMSEA의 경우 .05에서 .08 사이면 적당하고 .05 이하일 때 좋은 적합도 라고 해석한다(Browne & Cudeck, 1993)는 기준을 적용하였다. 그 결과, 본 연구모형의 적합도는 좋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chi^2(24,$

$N=200)=53.76, p<.001; RMSEA=.079(90\% CI: .051-.107), CFI=.952, TLI=.911(그림2)$. 그 다음, 대안모형으로서 인지적 유연성과 자기개념 복잡성이 심리적 적응으로 가는 경로를 추가한 모형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조금 더 높아졌고, $\chi^2(22, N=200)=45.21, p<.01; RMSEA=.073(90\% CI: .042-.103), CFI=.963, TLI=.924(그림3)$, χ^2 차이검증 결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Bentler와 Bonett(1980)에 따르면 자유도가 2 차이 날 때 χ^2 값이 5.99이상 차이 나면 두 모형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본다. 연구모형과 대안모형 중 대안모형의 모형 적합도가 조금 더 좋으므로 대안모형을 채택하였다. 따라서 대안모형의 각 경로계수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자기개념 복잡성이 인지적 유연성으로 가는 경로, $\beta=.221, p<0.01$, 인지적 유연성에서 자기개념 명확성으로 가는 경로, $\beta=.251, p<0.01$, 자기개념 명확성에서 심리적 적응으로 가는 경로, $\beta=.446, p<0.001$, 자기개념 복잡성에서 자기개념 명확성으로 가는 경로는 모두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beta=-.169, p<0.05$. 그리고 연구모형에서 추가된 경로인 인지적 유연성에서 심리적 적응으로 가는 경로는 유의하였으나, $\beta=.173, p<0.05$, 자기개념 복잡성에서 심리적 적응으로 가는 경로는 유의하지 않았다, $\beta=.116, p>0.05$.

대안모형의 매개효과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Sobel 검증(Sobel, 1986)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자기개념 복잡성과 자기개념 명확성의 관계에서 인지적 유연성의 매개효과는 $Z=1.98(p<.05)$ 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매개효과 크기는 $\beta=.221 \times .251=.055$ 로 자기개념 명확성 변량의 5.5%를 설명한다. 자기개념 복잡성과 심리적 적응의 관계에서 자기개념 명확성의 매개효과는 $Z=-2.00(p<.05)$ 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매개효과 크기는 $\beta=-.169 \times .446=-.075$ 로 심리적 적응 변량의 7.5%를 설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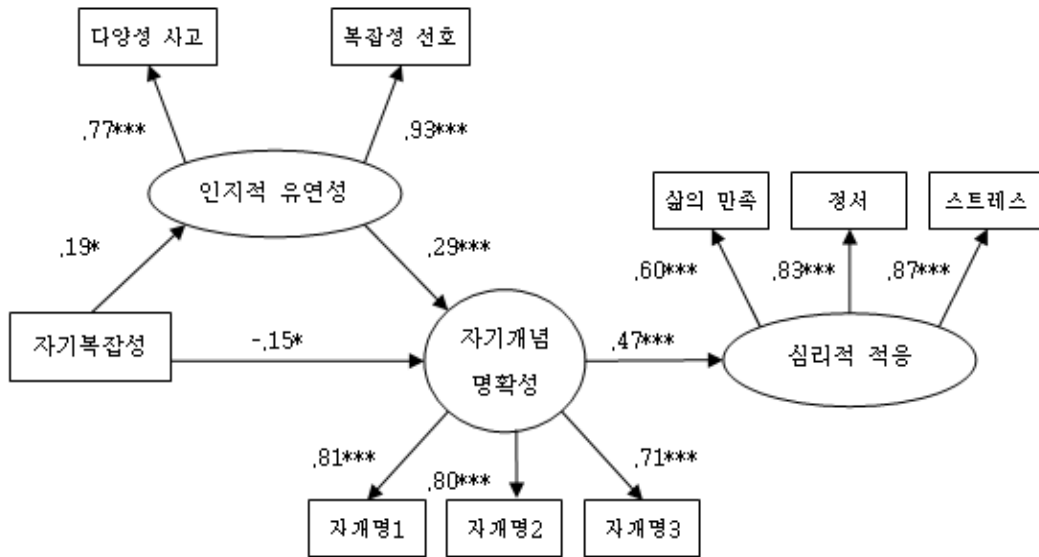


그림 3. 자기개념 복잡성과 심리적 적응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모형
* $p < .05$. ** $p < .01$.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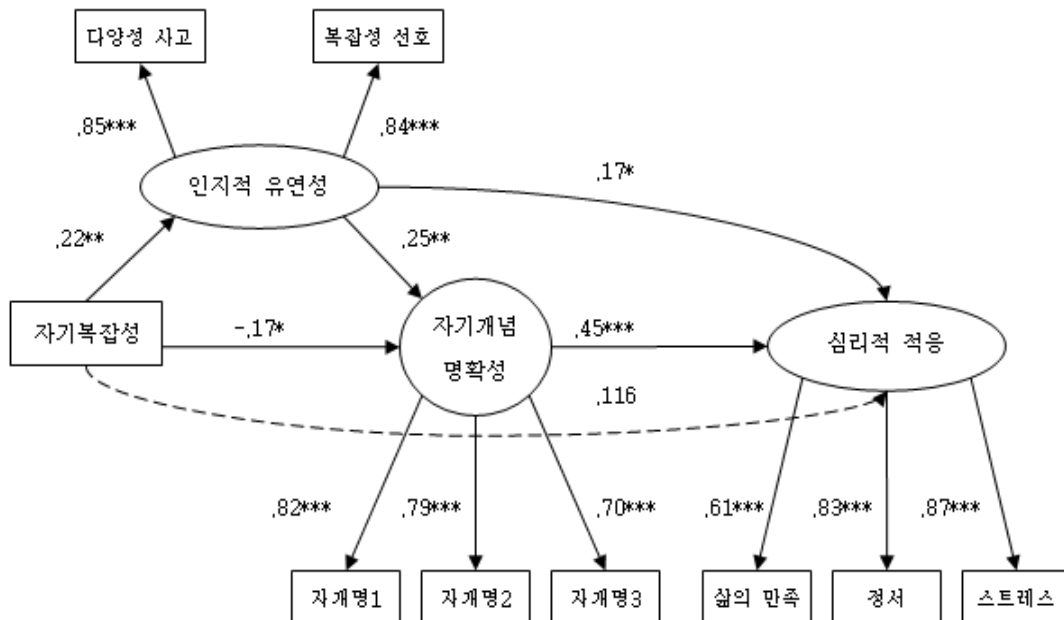


그림 4. 대안모형
* $p < .05$. ** $p < .01$. *** $p < .001$.

논 의

본 연구 설계의 가장 근본적 동기는 자기개념 복잡성이 어떠한 인지적 과정을 통해 심리적 적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살펴보는 데에 있었다. 선행 연구들에서 자기개념 복잡성과 심리적 적응 사이에 영향을 미치는 조절변인을 주로 살펴봤다면, 본 연구에서는 매개변인을 설정하여 보다 구체적인 경로를 살펴봄으로써 두 변인 간의 관계를 검증한 것이 새로운 점이라 볼 수 있겠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자기개념의 인지적 측면과 관련된 다양한 변인을 살펴보는 데에 의의를 두고, 자기개념의 표상적 구조인 자기개념 복잡성과 인식적 구조인 자기개념 명확성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변인으로서 인지적 유연성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이 매개과정이 결과적으로 개인의 심리적 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에 나타난 결과에 기초하여 그 의의를 논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 연구들에 의하면 자기개념 복잡성과 자기개념 명확성의 두 구조적 자기개념은 서로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아, 각각 독립적 차원에 존재할 것이라는 예측(Campbell et al., 2003; 이수현, 2005)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Shrout & Bolger(2002)에 의하면 매개변인이 존재할 때, 매개효과(‘예언변인 → 매개변인’ X ‘매개변인 → 결과변인’)의 방향과 직접효과(‘예언변인 → 결과변인’)의 방향이 반대일 경우, 매개변인이 투입되기 전 예언변인과 결과변인 간의 상관은 유의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의 매개변인을 ‘억압변인’이라고 정의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지적 유연성이 억압변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 동안 자기개념 복잡성과 자기개념 명확성 간의 관계가 제대로 읽히지 못했음을 지적하고 억압변인 가설을 세워 접근하였다. 그 결과, 인지적 유연성을 매개변인으로 설정할 경우, 자기개념 복잡성과 자기개념 명확성 간에 유의한 관계가 나타났다. 즉, 인지적 유연성이 매개변인으로 설정된 부분매개 모형에서 둘의 직접효과를 살펴보니, 자기개념이 복잡해질수록 자기개념에 대한 명확한 인식 수준은 낮아짐을 알 수 있었다. 두 변인 간

에 유의한 상관이 나오지 않았더라도, 둘 사이를 매개하는 변인의 억압효과를 고려할 경우 예언변인과 결과변인 사이에 유의한 직접효과가 나타나 매개모형이 검증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인지적 유연성이 매개 역할을 함으로써 자기개념 복잡성이 자기개념 명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는 본 연구의 가설1을 지지해주는 결과이다. 앞서 언급한 대로, 복잡한 자기개념의 구조가 전제될 때 자기개념이 명확하다면 더욱 성숙하고 발달된 자기개념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두 개념을 연결하는 합치점으로서 인지적 유연성을 발견한 것은 성숙한 자기개념의 확립과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게 해줄 것이다. ‘진짜 내 모습’이 무엇인지에 혼란을 느끼면 자기수용, 자기통합, 나아가 성취, 지위, 주체성까지를 일컫는 보다 포괄적인 개념인 자아정체감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Marcia, 1980). 따라서 인지적 유연성을 통해 자기개념 명확성이 높아지는 과정은 자아정체감 형성에도 중요한 과정이 되리라 본다. 또한 이는, 자기개념의 통합적 인식과 인지적 유연성과의 관계를 살펴 자기개념의 구조적 측면과 인지적 유연성의 관계를 보다 분명히 밝혀야 한다는 제안(김완일, 2008)에도 어느 정도 답을 제시해주고 있다.

셋째, 모형검증을 통해서 자기개념 복잡성이 인지적 유연성 및 자기개념 명확성을 매개로 할 경우 심리적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됨을 확인하여 가설2가 지지되었다. 즉, 자기개념이 복잡한 구조로 이루어진 사람은 자기개념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어렵지만, 인지적 유연성이 높아짐에 따라 명확한 인식의 수준도 높아져 적응적인 심리상태를 갖게 됨을 의미한다. 이는 자기개념이 통합적일수록 심리적 안녕감이 높아진다는 연구(Lecky, 1945; Rogers, 1959)와 자기개념이 복합적일수록 심리적 안녕이 높아진다는 연구(Gergen, 1971; Goffman, 1959)의 상반된 입장을 모두 설명한다. 말하자면, 여러 색을 가진 팔색조의 모습을 한 사람이 그러한 자신의 모습에 만족과 행복을 느끼며 살기 위해서는, 다양한 자기 모습들을 유연하게 받아들임으로써 통합적이며 총체적인 자아상을 성립해야함을 의미한다. 사람은 환경이나 역할 등의 영

향으로 자기모습들이 복잡하게 얽혀있을 때 혼란을 겪기도 하지만, 이에 적응하고자 여러 관점에서 자기 모습들을 살피고 이해하며 수용하기도 한다. 이렇게 유연하게 사고하는 과정은 점차 보다 명확한 자신을 규명하게끔 만들어, 이를 통해 개인의 심리적 적응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자기개념 복잡성의 스트레스 완충 가설의 논란이 본 연구모형을 통해 줄어들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Linville(1987)은 자기개념 복잡성이 높으면 여러 자기측면들이 스트레스의 과잉확산을 막아준다고 보았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단순히 자기개념 복잡성만 높을 경우 자기개념 복잡성은 심리적 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그림4), 인지적 유연성이나 자기개념 명확성을 거칠 때에만 긍정적인 영향력을 가졌다. 이는 자기개념 복잡성과 자기개념 명확성이 모두 높을 경우에만 스트레스 완충가설이 성립된다는 연구결과(이수현, 2005)를 조금 더 구체화 한 결과라 볼 수 있다. 특히, 심리적 적응 중에서도 낮은 스트레스 지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침으로써, 자기개념 복잡성의 스트레스 완충가설이 인지적 유연성과 자기개념 명확성을 통해서 설명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다섯째, 대안모형의 경로계수들을 살펴보면, 인지적 유연성이 심리적 적응에 곧바로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 비해서 자기개념 명확성을 거쳐 심리적 적응으로 가는 경로가 더 유의미했으며 설명력도 높았다. 즉, 복잡한 자기개념의 퍼즐 조각들은 하나의 그림으로서 인식 될 때 더욱 큰 만족감과 행복을 준다는 의미이다. 구체적으로, 사람은 성장하고 발달할수록 점점 다차원적이고 복잡한 자기개념을 형성하게 된다. 이때 향상되는 인지적 유연성이 자기모습을 보다 명료히 인식하도록 도움을 줄 때에 심리적 적응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 이는 다양한 역할을 갖기 시작하고 자신의 여러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시기인 성인기 초반의 사람들에게 더욱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적응적인 모습을 보이며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으려면 인지적 유연성의 발달을 통해서 자기개념에 대해 명확히 인식하는 과정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단, 본 연구에서 사용한 인지적 유연성 척도(홍숙지, 2005)가 국내에서 개발된 유일한 척도이긴 하지만, 하위 척도

중 ‘복잡성 선호’의 내적 타당도 지수가 .7에 미치지 못하는 문제가 나타났으므로 앞으로 한국인에게 더욱 적합한 인지적 유연성 척도를 개발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본다.

아울러, 자기개념이 구조적 측면과 내용적 측면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상기해 볼 때, 개인의 심리적 건강을 예측함에 있어서 두 측면을 함께 살펴보는 것도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본다. 즉, 개인의 내부에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고뇌가 생겨날 때, 자존감, 자기효능감, 자기가치감 등의 내용적 측면과 더불어 자기개념의 조직화 방식, 통합적 인식 수준 등의 구조적 측면은 심리적 건강에 동시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자기개념의 구조적 요소와 내용적 요소를 총괄하는 모델을 설정하여 개인의 심리적 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 것은 중요한 과제라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H통계치 점수 산출 프로그램의 제약으로 인해 자기개념 복잡성을 단순히 구조적 요인으로서만 설정하여, 자기개념 복잡성을 긍정적인 개념과 부정적인 개념의 내용적 측면으로 구분(Morgan & Janoff-Bulman, 1994; Woolfolk et al., 1995)하여 살펴볼 수 없었다. 자기개념 명확성이 긍정적인 내용을 더욱 잘 처리하는 속성이 있음(Campbell et al., 1996)을 고려하면, 긍정적 개념과 부정적 개념이 구분된 자기개념 복잡성이 또 다른 효과나 양상을 보일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 자기개념 복잡성을 내용에 따른 하위요소로 구분하여 자기개념의 구조적, 내용적 측면을 함께 살펴본다면, 자기개념과 심리적 적응간의 관계를 더욱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완일 (2008). 자기복잡성과 인지적 유연성이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0(3), 715-734.
- 안신능 (2006). 자기개념에 따른 자기불일치와 삶의 만족도의 인과적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수현 (2005). 자기복잡성과 자기개념 명료성이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

- 학위 논문.
- 이정은 (2006). 자기복잡성과 자기효능감이 우울과 지각된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조용래 (1999). 역기능적 신념과 사회공포증상간의 관계에서 부적응적인 자동적 사고의 매개효과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8(1), 17-36.
- 홍숙지 (2005). 개인 유연성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Bentler, P. M. (1990). Comparative fit indexes in structural models. *Psychological Bulletin*, 107, 238-246.
- Bentler, P. M., & Bonett, D. G. (1980). Significance tests and goodness of fit in the analysis of covariance structures. *Psychological Bulletin*, 88, 588-606.
- Browne, M. W., & Cudeck, R. (1993).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In K. A. Bollen & J. S. Long (Eds.), *Tes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pp. 136-162). Newbury Park CA: Sage.
- Campbell, J. D. (1990). Self-esteem and clarity of the self-concep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9, 538-549.
- Campbell, J. D., Assanand, S. & Paula A. (2003). The structure of the self-concept and its relation to psychological adjustment. *Journal of Personality*, 71, 115-140.
- Campbell, J. D., Chew, B., & Scatchley, L. (1991). Cognitive and emotional reactions to daily events: The effects of self-esteem and self-complexity. *Journal of Personality*, 59, 473-505.
- Cohen, S., & Williamson G. M. (2000). Stress and infectious disease in humans
- Diener, E., Smith, H., & Fujita, F. (1995). The personality structure of affec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9, 130-141.
- Dixon, T. M. & Baumeister, R. F. (1991). Escaping the self: Moderating effects of self-complexity.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19, 4-12.
- Donahue, E. M., Robinson R. W., Roberts, B. W., & John, O.P. (1993). The divided self: Concurrent and longitudinal effects of psychological adjustment and social roles on self-concept differenti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4, 834-846.
- Gara, M. A., Woolfolk, R. L., Cohen, B. D., Goldstone, R. B., Allen, L. A., & Novalany, J. (1993). Perception of self and other in major depression.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2, 93-100.
- Gergen, K. J. (1971). *The concept of self* New York: Holt, Rinehart & Winston.
- Goffman, E. (1959). *The presentation of self in everyday life*. New York: Anchor Books.
- Helson, R., Elliot, T., & Leigh, J. (1990). Number and quality of roles: A longitudinal personality view.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14, 83-101.
- Hershberger, P. (1990). Self-complexity and health promotion Promising but premature. *Psychological Reports*, 66, 1207-1216.
- Holmbeck, G. N. (1997). Toward Terminological, conceptual, and statistical clarity in the study of mediators and moderators: Examples from the child-clinical and pediatric psychology literature.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5, 599-610.
- James, W. (1948). *Psychology*. New York: World.(Original work published 1890).
- Jordan, A. & Cole, D. A. (1996). Relation of depressive symptom to the structure of self-knowledge in children. *Journal of*

- Abnormal Psychology*, 105, 530-540.
- Lecky, P. (1945). *Self-consistency: A theory of personality*. New York: Anchor Books.
- Linville, P. W. (1987). Self-complexity as a cognitive buffer against stress-related illness and depress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 663-676.
- Marcia, J. A. (1980). Identity in adolescence. In J. Adelson (Ed.), *Handbook of adolescent psychology* (pp. 159-187). New York: Wiley.
- Markus, H. (1990). Unsolved issues of self-representation.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14, 241-253.
- Markus, H., & Nurius, P. (1986). Possible selves. *American Psychologist*, 41, 954-969.
- Marsh, H. W., Relich, J. D., & Smith, I. D. (1983). Self-concept: The construct validity of interpretations based upon the SDQ.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5, 173-187.
- Martin M. M. & Rubin R. B. (1995). A new measure of cognitive flexibility. *Psychological Reports*, 76, 623-626.
- McConnell, A. R., Renaud, J. M., Deab, K. K., Green, S. P., Lamoreaux, M. J., Hall, C. E., & Rydell, R. J. (2005). Whose self is it anyway? self-aspect control moderates the relation between self-complexity and well-being.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41, 1-18.
- Morgan, H. J., & Janoff-Bulman, R. (1994). Positive and negative self-complexity: Pattern of adjustment following traumatic versus non-traumatic life experiences.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13, 63-85.
- Paulhus D. L. & Martin C. L. (1988). Functional flexibility: A new conception of interpersonal flexibil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5, 88-101.
- Rafaeli-Mor, E. & Steinberg, J. (2002). Self-complexity and well-being: A review and Research Synthesis. *Personal and Social Psychology Review*, 1, 106-128.
- Renaud, J. M., & McConnell, A. R. (2002). Organization of the self-concept and the suppression of self-relevant thought.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38, 79-86.
- Rogers, C. R. (1959). A theory of therapy, personality,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s developed in the client-centered framework. In S. Koch(Ed.), *Psychology: A study of science* (Vol. 3, pp. 1-59). New York: McGraw-Hill.
- Schroeder, H. M., Driver, M. J., & Streufert, S. (1967). *Human information processing*. New York: Holt, Rinehart & Winston.
- Shrout, P. E., & Bolger, N. (2002). Mediation in experimental and nonexperimental studies: New procedures and recommendations. *Psychological Methods*, 7, 422-445.
- Smith, S. H. & Cohen, L. H. (1993). Self-complexity and reactions to a relationship breakup.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12, 367-384.
- Sobel, M. E. (1986). Some new results on indirect effects and their standard errors in covariance structure models. In N. Tuma (Ed.), *Sociological Methodology 1986* (pp. 159-186). Washington, DC: American sociological association.
- Suh, E. M., Diener, E., Oishi, S., & Triandis, H. (1998). The shifting basis of life satisfaction judgements across cultures: Emotion versus norm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4,
482-493.

Thurston B. J. & Runco M. A. (1999).
Flexibility. In Runco, M. A., & Pritzker, S.
R. (Eds.), *Encyclopedia of creativity*, 1,
Academic Press, San Diego, CA, 729-732.

Woolfolk, R. L., Novalany, J., Gara, M. A., Allen, L.
A., & Polino, M. (1995). Self-complexity,
self-evaluation and depression: An examination
of form and content within the self-schema.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8, 1108-1120.

The Relation between Self-Complexity and Subjective Well-being Throughout Cognitive Flexibility and Self-concept Clarity

Bo-ra Song

Ki-hak Lee

Yonsei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whether self-complexity predicted psychological adjustment. Cognitive flexibility and self-concept clarity were hypothesized as factors that mediate this process. A total of 200 undergraduate students at a university in Seoul, South Korea participated the study and completed a packet of questionnaires including self-complexity, self-concept clarity, cognitive flexibility, subjective well-being, and perceived stres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ndicated that there were the partial mediating effect of cognitive flexibilit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complexity and self-concept clarity. In addition, findings indicated support for the hypothesis that this partial mediating process showed an increase in psychological adjustment.

Keywords : self-complexity, self-concept clarity, cognitive flexibility, subjective well-being, perceived stress

1차원고 접수일 : 2009년 6월 10일
수정원고 접수일 : 2009년 8월 18일
게재 확정일 : 2009년 8월 20일